

# “신용카드 안 받아요” 거꾸로 가는 축협



기자 수첩  
김태우  
(지방자치부)

최근 축협에 사료를 구입하기 위해 들렀던 K씨(52)는 사료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그랬더니 판매담당자는 현금거래만 가능하며 신용카드를 받을 수 없다며 사료 판매를 거부했다. 이에 청송·영양축협측은 “축산사료는 영리가 목적이 아니다.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현금거래만 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생산과 소비의 투명성, 거래관계 및 소득에 따른 과세형평성 확보 등 신용카드사용을 권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일반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다. 이러한 현상은 영양지역 일부 상인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농자재나 견재상, 철물점 등에서는 현금거래와 신용카드 거래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어서다. 신용카드 거래 시 10%의 수수료 혹은 부가세 명목으로 더 부과하는 어이없는 광경도 속출하고 있어 지역민은 물론 영양을 찾는 외지인들의 눈살까지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반상정에서도 현금거래와 신용카드 거래 시 거래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축협에서 신용카드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다.

신용카드 거래의 일반화를 통해서 매출액 고의 누락이나 허위신고를 막아 탈세를 방지하는 것 이외에 소비자 편리성과 안정성까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축협의 거래실적 누락과 농자재상, 견재상, 철물점 등의 업을 하는 사업자의 현금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분명 불편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이나 탈법, 혹은 불법이 아닌지 국제정에서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송·영양축협에서는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만 받을 이유가 없다”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고 청송·영양축협에 대하여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양군 지역주민은 청송·영양 축협 영양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사료를 사러 진보까지 가야하는 불편함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청송·영양 축협 관계자는 향후 카드사용을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은 물론 진보까지 오지 않고 영양지점에서도 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편의, 불편부당, 무자료 거래 등으로 소비자의 지탄을 받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

/ktu3987@

# 무안국제공항, 코로나 극복 ‘구슬땀’ “전남마을기업과 공항 활성화”

## 무안공항면세점 자구책 마련 전남마을기업協과 MOU 체결 공동 마케팅 통한 홍보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가 장기화하면서 무안국제공항도 올스톱돼 공항 면세점도 덩달아 직격탄을 맞았다.

17일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자료와 유통·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1월1일~2월29일) 무안국제공항 국내선 여객은 1만2183명으로 지난해 보다 67%(2만4080명)나 감소했다.

국제선 여객 역시 8만7688명으로 지난해 대비 37%(5만179명) 줄었다.

급기야 무안공항은 지난 2일 전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승객이 줄어들며, 감염 우려 등이 겹쳐 공항을 사실상 폐쇄했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 면세점 역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메르스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보복 등으로 큰 영업 손실을 봤던 무안공항면세점이 또다시 코로나19사태가 겹치면서 영업손실이



무안국제공항

크게 나자, 지난 2일 문을 닫았다.

무안공항면세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17~2018년 사드사태로 인해 여행객이 대폭 감소해 4년째 연 15~20% 영업손실을 입고 올해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 문까지 닫게 됐다.

하지만, 무안공항면세점은 돌파구 마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항 운영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

무안공항면세점은 최근 광주시관광협회와 전남마을기업협의회와 잇따라 관광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은 앞으로 ▲관광객 유치지원과 ▲공동마케팅을 통한 면세점 홍보 ▲전남상품 판매홍보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는 물론 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면세점 관계자는 “4년째 손실을 보고 있고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지역경제와 공항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큰 영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고용 안정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시설에 투자하고 여러 노력을 해온 만큼 새로운 돌파구를 반드시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안동시, 주택 공시가격 열람·의견청취 실시

개별주택 3만 1908호 대상

안동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3만190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는 오는 4월 29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실

시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3만 5354호에 대한 가격열람과 의견제출도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진행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정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 초등축구리그 ‘꿈자람 페스티벌’, 강진서 개최

전지훈련지 인기·인지도 한몫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대한축구협회 주최 전국초등축구리그 꿈자람 페스티벌(구 왕중왕전)이 전남 강진에서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강진에서 열린다.

군은 지난달 5일 대회 개최 유치 신청서를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하고 심사단 심사를 거쳤다.

강진군이 최종 개최지로 선택된 것은 우수한 체육시설과 규모 있는 전국 대회 개최 노하우, 동계 전지훈련지로서의 인기·인지도가 한몫했다는 평가다.

/전남=양수영 기자

# 경북도,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업 선정

## 태양광 사업 추진, 국비 13억 확보 이달부터 10개월간 50.4억 투자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북도가 응모한 사업은 ‘전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민참여 옥상공용 태양광 사업’이다.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올해는 지원한 15개 사업 가운데 6개 사업이 선정됐다.

경북도는 경북테크노파크, 포스텍, ㈜H에너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이번에 확보된 국·도비 각 12억6000만원씩 전체 사업비 50%를 포함해 이달부터 10개월간 총 50억 4000만원이 투입된다.

도는 최근 친환경 전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이 참여가 제한적이고 서비스가 불투명한 문제를 풀고자 전국 최초로 ‘알이백(RE100)’, ‘전력 플랫폼’을 비즈니스 모델에 도입했다.

알이백(RE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현재 구글·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 다수가 참

여하고 있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지자체 최초로 이 의미를 일반 가정에게까지 확장했다. ‘우리집 전기는 친환경적으로 생산한다’는 캠페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것이다.

그동안 태양광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본이 부족하거나 설치할 장소가 없어 원천적으로 배제됐던 전·월세, 아파트 거주자들이 모여 펀드형식으로 태양광 발전을 구축하고 수익을 나누어 갖는 방식이다.

전력 플랫폼(O2O)이란 가정의 소규모 태양광처럼, 곳곳에 흩어진 태양광 발전설비와 수요를 ‘가상’으로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39 | 해질 / 18:42

3월 18일 (수) 음력 : 2월 24일

수도권 날씨 3 ~ 1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2/16, 동두천 -3/10, 가평 -2/16, 파주 -2/15, 서울 3/16, 양평 -1/17, 인천 4/14, 수원 5/16, 용인 5/16, 평택 0/17, 백령도 5/1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내 47필지 분양

## 평택도시공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

평택도시공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 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47필지를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 지구는 경기도 유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고속철도(KTX) 등의 광역 교통인프라와 중국, 동남아 등과 연계된 글로벌 교통체계가 높은 투자 가치를 가진다.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는 경쟁입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

찰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개찰일은 18일로 최고가 낙찰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한다.

/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 상주시 소유시설 임대료 감경

상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경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임차인들이 빌려 쓰는 공공시설 중 코로나19로 실제 사용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임차료 및 그 이자를 감경하거나 기간 연장 중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